

중·고등학생의 선한댓글쓰기 경험과 공격성과의 관계

민병철*, 박근일**, 오경숙***

*선플운동본부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국제대학교 유아교육과

e-mail:geb1568@daum.net

(A)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Good Comments Writing Experience and Aggression of the Teenager

Byoung-chul Min*, Keul-Il Park**, Kyoung-Sook Oh***

*Founder & Chairman of Sunfull Foundation

**Dept. of Youth Education and Leadership, MyongJi University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okj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한댓글쓰기 경험과 공격성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에 재학중인 중·고등학생 299명을 설문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계수, 빈도와 백분율, t-검증,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분석과 사후검정으로 Duncan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연구대상 청소년들의 69.6%가 선한댓글쓰기 경험이 있었고, 둘째, 이들의 공격성 수준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관계적 공격성은 외현적 공격성에 비해 높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은 선한댓글쓰기 경험이 있을 때 공격성이 낮았다. 결과를 통해서 선한댓글쓰기 경험은 청소년들의 공격성을 완화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인터넷 댓글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1. 서론

2020년 8월에 발표된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진단 조사 결과’에서는 참여대상 청소년(133만1,441명)의 17.1%(22만8,120명)가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2018년 19만6,337명과 2019년 20만6,102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청소년(만10-19세)의 과의존 위험군은 30.2%로 성인(18.8%)보다 1.6배 높았으며[1], 청소년중 초등학교 4학년(28.8%)보다는 고등학생(34.1%)과 중학생(37.0%)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높았다[2].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청소년들은 99.5%가 여가활동(음악듣기, 동영상보기, 온라인게임), 98.2%가 커뮤니케이션(인스턴트메신저·SNS·이메일)을 하였고[3], 21.17%가 매일 2시간 이상 게임 및 오락을 위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1].

이러한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과 맞물려 청소년들은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온라인 게임 상에서 일어나는 말다툼과 더불어 n번방 사건과 같은 랜덤채

팅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등에 피해자로 노출될 뿐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루머성 댓글이나 상대방 비난 등 악성댓글로 인한 가해자로서의 범죄를 일으킬 소지를 가지고 있다. 이에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과의존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하고 있는 언어표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고등학생의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은 중독발달에 취약한 청소년기[4]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경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학업에 지장을 받거나 불안감을 느끼며, 우울, 일상적 스트레스를 느끼고[5], 공격성과 충동성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7]. 특히 청소년의 공격성은 익명성을 보장받는 인터넷 사용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8], 청소년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여가활동(온라인 게임 등)과 커뮤니케이션(SNS) 등에서 공격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9]. 이에 인터넷 사용시 청소년들의 공격성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되어질 필요가 있다.

몇 년 전부터 청소년의 선한댓글쓰기를 권장하고 있는 ‘선플달기 운동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선플활동경험

을 통해 ‘책임’과 타인을 배려하는 통신 예절을 지키는 등 윤리의식을 심화시키는 교육적인 효과가 높다고 하였다[10]. 또한 학교생활 중 교사관계와 교우관계, 학업성취도를 높여 학교생활적응에 효과적임을 밝혔다[11].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우울 및 공격성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2].

이처럼 인터넷 문화에서 선한댓글쓰기 활동이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 효과가 밝혀지고 있음에도 전체적으로 선한댓글쓰기 활동이 청소년의 인터넷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청소년의 건강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한 방안으로써 청소년의 선한댓글쓰기 경험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연구는 선한댓글쓰기 활동이 청소년의 공격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본 연구의 결과가 급증하는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공격성을 줄일 수 있는 대응과 관리방안 도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청소년의 선한댓글쓰기 경험정도는 어떠한가?
- 둘째,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은 어떠한가?
- 셋째, 선한댓글쓰기 경험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 차이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 128명(42.8%)과 고등학생 171명(57.2%)의 청소년으로 총 299명(남학생 132명(44.1%), 여학생 167명(55.9%))이다.

2.2 연구도구

2.1.1 선한댓글쓰기 경험

청소년의 선한댓글달기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자들이 “당신은 학교에서 운영되는 선플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와 “선플 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의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1.2 공격성 척도

청소년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Marssee & Frick(2007)[13]의 척도를 한영경(2008)[14]이 내용타당도 검증을 마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반응적-외현적 공격성, 주도적-외현적 공격성, 반응적-관계적

공격성, 주도적-관계적 공격성)총 40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요인별 신뢰도 Cronbach' α 는 [표 1]과 같다.

[표 1] 공격성 검사척도의 신뢰도

요인	용어정의	문항수	Cronbach's α
반응적-외현적 공격성	특정한 외적 자극으로부터 반응적(反應的)인 공격성이자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형태의 공격성(‘놀림을 당하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무언가를 부술 것이다’ 등)	10	.956
주도적-외현적 공격성	개인이 주도적인 의도로 표현된 공격성(‘게임 혹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 등)	10	.956
반응적-관계적 공격성	특정한 외적 자극으로부터 나타나는 공격성이나 공격성이 사람들 간의 관계성에 기반한 공격성(‘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때때로 그 사람에 대한 뒷말을 한다’ 등)	10	.973
주도적-관계적 공격성	개인이 주도적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성에 기반한 공격성(‘다른 사람을 놀리는 것은 재미있다’ 등)	10	.970
전체		40	.986

2.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제작된 설문지 300부를 서울과 경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담당교사의 지원을 받아 2020. 08. 30 부터 한 달간 자기평가 기입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즉시 회수하였다. 300부의 설문지중 응답이 누락된 1부를 제외한 총 299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SPSS(ver 21.0)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도분석, 빈도분석, 기술통계, t-검증과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선플달기 경험정도

[표 2] 선플달기 경험정도

구분		명(%)
선한 댓글쓰기 경험	없다	94(31.4)
	12개월 이내	63(21.0)
	13개월-24개월	65(21.7)
	24개월 이상	77(25.8)
	전체	299(100.0)

[표 2]와 같이 전체 청소년 중 31.4%는 선한 댓글쓰기 경험이 없었고, 24개월 이상 선한댓글쓰기 경험을 한 청소년이 25.8%, 13개월-24개월이 21.7%, 12개월 이내가 21.0% 수준을 보였다.

3.2 공격성 수준

[표 3] 공격성 수준

요인	N	M	SD	최솟값	최댓값
반응적-외현적 공격성	299	2.14	.77	1.00	5.00
주도적-외현적 공격성	299	2.19	.84	1.00	5.00
반응적-관계적 공격성	299	2.48	.98	1.00	5.00
주도적-관계적 공격성	299	2.60	.99	1.00	5.00
전체	299	2.35	.83	1.05	5.00

[표 3]과 같이 공격성의 청소년의 공격성은 전체 2.35점으로 공격성 수준이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하위변인 중 주도적-관계적 공격성이 평균 2.60으로 가장 높았고, 반응적-관계적 공격성 2.48, 주도적-외현적 공격성 2.19, 반응적-외현적 공격성 2.14 순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의 공격성은 외현적 공격성보다는 사람 간 사이의 관계성에 기반한 공격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3.3 선한댓글쓰기 경험과 공격성 차이

[표 4] 선한댓글쓰기 경험과 공격성 차이

N=299

	있다 n=205		없다 n=94		t
	M	SD	M	SD	
반응적-외현적 공격성	1.81	.50	2.87	.75	-14.48***
주도적-외현적 공격성	1.79	.52	3.07	.73	-17.31***
반응적-관계적 공격성	2.02	.68	3.50	.73	-17.13***
주도적-관계적 공격성	2.13	.69	3.61	.73	-16.87***
전체	1.94	.50	3.26	.63	-19.45***

***p<.001.

공격성수준은 선한댓글쓰기 경험 없는 집단이 선플 경험이 있는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t=-19.45, p<.001). 공격성 4개 하위요인 모두에서 선한댓글쓰기 경험이 없는 집단이 선한댓글쓰기 경험이 있는 집단에 비해 공격성은 높음을 알 수 있다.

선한댓글쓰기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선한댓글쓰기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공격성이 낮음을 볼 때, 선한댓글쓰기 경험기간에 따라 청소년의 공격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

음[표 5]와 같다.

[표 5] 선한댓글쓰기 경험 기간에 따른 공격성 수준 차이

N=299

요인	없다 n=94		12개월 이내 n=63		13개월- 24개월 n=65		24개월 이상 n=77		F	Duncan
	M	SD	M	SD	M	SD	M	SD		
반응적-외현적 공격성	2.87	.75	1.87	.55	1.79	.49	1.77	.50	70.1***	a>b,c,d
주도적-외현적 공격성	3.07	.73	1.84	.56	1.80	.52	1.73	.49	100.0***	a>b,c,d
반응적-관계적 공격성	3.50	.73	2.06	.72	1.98	.61	2.02	.71	97.4***	a>b,c,d
주도적-관계적 공격성	3.61	.73	2.15	.69	2.09	.65	2.15	.73	94.4***	a>b,c,d
전체	3.27	.63	1.98	.53	1.92	.50	1.92	.50	125.6***	a>b,c,d

***p<.001.

[표 5]와 같이 공격성 수준은 전체적으로 선한댓글쓰기 경험 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125.6, p<.001), 이는 공격성의 4가지 요인 모두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Duncan 검증결과 집단 간 차이는 선한댓글쓰기 경험이 없는 집단과 나머지 3집단 간에 있었다. 즉, 청소년의 공격성은 선한댓글쓰기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은 기간에 상관없이 선한댓글쓰기 경험을 갖지 않은 청소년보다 공격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선한댓글쓰기 경험과 공격성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먼저, 대상 청소년중 31.4%는 선한 댓글쓰기 경험이 없었고, 68.6%는 선한댓글쓰기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대상 청소년들의 공격성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으나 주도적-관계적 공격성과 반응적-관계적 공격성이 높음을 볼 때 청소년들은 타인과 이해관계가 생겼을 경우 공격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악플을 다는 이유가 ‘나와 다른 의견에 반박하기 위해’(20.0%)와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서’(14.8%)라고 밝힌 원다훤(2012)[15]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로, 타인과 의견차가 발생하거나 상대방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을 경우 청소년들은 공격성을 표출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타인과의 의견차가 발생하였을 때, 공격적인 방법보다는 건설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선한댓글쓰기의 경험정도에 따라 공격성 수준을 살펴본 결과, 선한댓글쓰기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에 비해 공격성이 낮았다. 특히 가장 높은 공격성 점수를 보였던 주도적-외현적 공격성과 반응적-관계적 공격성에서 높은 차이를 보였는데, 선한댓글쓰기 활동이 타인과의 의견 충돌 관계에서 나타나는 공격성을 줄여준다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해석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선한댓글쓰기 경험은 청소년의 공격성을 완화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인터넷 댓글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으므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공격성에 대한 자기 보고 방식으로 이루어져 응답자가 설문에 응답할 때 타인을 의식하여 답변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후속연구에서는 면담법이나 관찰법 등을 활용하여 연구타당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일부 지역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켜 해석하기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확대와 지역 안배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 진흥원,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 진흥원, 2020년.

[2] 여성가족부, “2020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0년 8월 26일, 2020년

[3]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9 청소년 통계”, 2019. 5월 배포, 2019년.

[4] Shaffer, H. J. & W. Bethune, “Introduction: Youth gambling”,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6(2): pp. 113-114. 2000년.

[5] 오경숙, 강영식, 김정겸,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 우울 성향 및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연구”, 2018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pp. 252-254, 2018년.

[6] 임금순,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국제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년.

[7] 임정아, 김명식,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과 충동성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제 16권 3호, pp. 395. 2018년

[8] 오경숙, “인터넷 익명 댓글 경험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충동성, 공격성 분석”, 2019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9년.

[9] 이창호, 이경상,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이 청소년의 사이버 불링에 미치는 영향 탐구”,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3호, pp. 259-285. 2013년.

[10] 민병철, 오경숙, 윤상용, 박근일, “선플활동경험에 따른 중학생의 정보통신 윤리의식 차이”, 제4권 3호, pp 1865-1868. 2018년.

[11] 민병철, 오경숙, “청소년의 선플봉사활동 참여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2018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 학술발표논문집, pp. 384-386, 2018년.

[12] 민병철, 윤상용, 김철래, 오경숙, “인터넷 선플을 다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에 관한 연구”, 2018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pp. 18-20, 2018년.

[13] 한영경,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요인’,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년.

[14] Marsee, M. A., & Frick, P. J. Exploring the cognitive and emotional correlates to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a sample of detained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6), pp. 969-981. 2007.

[15] 원다훤, ‘인터넷 공간에서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년.